

NEWS LETTER

2019년 6월 3일 Vol.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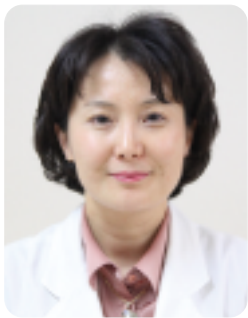
유방암 · 위암 걱정성 평가 4회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방암과 위암 걱정성 평가에서 4회 연속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결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유방암 걱정성평가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종합점수 99.1점을 기록했으며, 위암 또한 종합점수 97.2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암 치료에 있어 국내 최상급 수준의 의료기관임을 입증했다.

이해원 병원장은 “동국대일산병원은 각 진료과 전문의로 구성된 다학제 통합진료 시스템을 통해 암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화기내과 임윤정 교수,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자기장 기반 3D 캡슐 내시경 개발’로 국가연구과제 지원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윤정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도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연구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육성과 국·공립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 법인 연구기관 등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임 교수는 향후 4년간 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임윤정 교수는 “현재 캡슐 내시경은 소화기관 중 소장 검사를 목적으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향후 전체 위장 관을 관찰하는 미래형 캡슐 내시경 개발을 위해 기존 캡슐 내시경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해결해야 할 연구 과제가 많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고해상의 영상 확보, 정밀한 위치 파악과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판독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시 지역사회봉사활동 적극 참여, 고양시 표창장 수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최근 고양시로부터 감사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이 고양시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여하게 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매년 많은 의료진의 참여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매월 방문 의료봉사를 시행하며, 침 치료 및 건강 진료 상담을 펼치고 있다. 또한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강화도 전등사 이주민 축제 무료진료 참여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26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주최하는 제14회 이주민 문화 축제에 참석해 한방 의료지원을 펼쳤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매년 이주민 문화축제에 참여해 의료혜택이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에게 진료상담 및 침 치료, 투약, 혈압, 당뇨 측정 등의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의료지원에는 김동일 한방병원장을 비롯해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총 100여 명의 이주민에게 한방무료진료를 제공했다.



자원봉사자 아유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에서 ‘2019년 자원봉사자 아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원을 위해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병원에 대한 공지와 자원봉사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약 6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병원 곳곳에서 환자들의 손발이 돼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 봉사자들과 유대감을 높이고 서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아유회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같은 뜻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단합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으며, 힐링의 시간이 된 만큼 더욱 열심히 봉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